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오래된 우표 사라진 나라들

비에른 베르에 지음·홍현걸 옮김



“우리는 거센 폭풍에 휘말려 밴디먼스랜드 북서쪽으로 떠내려갔다. 위치를 측정해보니 남위 30도 2분이었다. 선원 열두 명은 과로와 식중독으로 죽었고, 남은 선원들도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구절이다. 몇 문단 위에는 배가 난파하고 주인공 걸리버가 어느 해안으로 표류해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곳은 리리퍼트라는 나라로, 15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소인들이 살고 있었다.”(본문 중에서) 오늘날 사용되는 형태의 우표가 처음 발

견된 건 1840년이다. 당시 영국의 교육자이자 발명가였던 로렌드 힐이 우표를 고안했다. 로렌드 힐은 영국의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를 도안으로 활용했다. 이때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근현대 시대 나라를 불러낸다. 저자는 옛 지도, 당시를 살았던 증인들의 기록, 후대 역사가의 해석 등을 토대로 생생한 역사를 펼쳐낸다. “저는 사용하지 않은 새 우표에는 별 흥미가 없습니다. 손을 많이 탄 우표, 세월이 묻어나는 우표일수록 제겐 귀중합니다... 오래 전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먼저 느꼈던 인상들이 스쳐가고, 저도 함께 그 느낌에 젖어듭니다.” 책은 역사에서 사라진 50여 개의 나라들이 등장한다. 내전과 내전을 거듭하다 파멸한 보아카 왕국, 포격 흔적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는 양시칠리아왕국, 간유 공장으로 쓰이다 화산 폭발로 무인도가 된 사우스세틀랜드제도도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사자가 속출했던 아프리카의 ‘비아프라’, 가스누출로 2800여 명의 사망자와 20만 명의 피해자를 낳았던 인도의 ‘보팔’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열강의 교묘한 술책으로 평화롭던 나라가 원주민들과 함께 사라진 나라도 있다. 티에라델푸에고에 거주했던 야간족이라는 부족은 그 희생양이다. 이들

은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살았고 수백 년에 걸쳐 다른 부족들도 이곳에 정착했는데, 그 가운데는 유목민족인 셸크남족도 있었다고 한다. “영국인 정착민들이 양 떼를 풀밭에 풀자, 원주민들은 이게 웬 떡이냐며 대대적인 사냥에 나섰다. 이는 대학살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영국 군대는 학살에 적극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학살은 주로 농장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상금은 원주민 한 명당 위스키 한 병 또는 1파운드였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이 있다. 과연 우표는 역사적 진실만을 담아낼까?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 속내 또한 담겨 있다는 게

오래된 우표로 밝혀내는 역사의 수수께끼

저자의 인식이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권력가들은 우표 발행을 매개로 영토 소유권을 주장했다. 칠레 군대는 새 도시를 점령할 때마다 소인부터 만들어 우표에 찍었다. 모든 우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초상화를 도안으로 했다. 영국은 한때 오렌지자유국(남아공 지역에 있었던 나라)을 침입해 수만 명의 목숨을 잃게 했다. 저자는 불과 135년(1840-1975) 사이에 사라진 나라가 50개라며 그만큼 격동의 시대였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얻은 진실이 있다.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며칠이든 100년이든 얼마 동안은 공방이 가 막혀들지만, 그 뒤엔 늘 몰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이다. <흐름출판·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직 한 사람의 차지

김금희 지음



젊은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김금희 작가의 신작 ‘오직 한 사람의 차지’가 나왔다. 떨거나 가까운 이들에게서 어쩌다 발견하게 되는 낯선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해 서사로 풀어낸 소설집이다. 윤성의 소설가의 “나는 이 작가가 잘 쓰는 작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작가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표현처럼, 김금희의 소설에 대한 반응은 호평이 적지 않다. 전작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 불쑥 생활을 장악해버린 불가해한 감정을 소상히 묘사하며 그 감정의 기원을 탐사했다. 이번 작품집에서는 평온했던 내면을 거세게 뒤흔드는 과거의 순간에 주목한다. 표제작 ‘오직 한 사람의 차지’는 아내와 장인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1인 출판사를 운영하다 사업을 정리했던 ‘나’의 모욕감과 상실감을 그려낸다. ‘낸다’라는 아이들을 쓰는 독자로부터 책에 대한 컴플레인을 받은 ‘나’는 비밀스러운 매력에 젖어 낸다를 알아가며 묘한 활기를 얻는다. 2017년 현대문학상 수상작 ‘체스의 모든 것’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계속 자조와 자학에 빠지는 ‘노아 선배’와 무신경을 가장한 강인한 자세로 모멸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국화’의 대학시절 교류를 그린다. 같은 해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작품 ‘문상’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서 연유한 죄책감이 폭력적으로 발현되는 장면을 포착한다. 김금희 작가의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동요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그것과 닮아 있다. 거기에는 ‘김금희표’ 나름의 독특한 인물들이 발산하는 매력이 있다. 독자들이 작가의 소설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명료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유다.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우표’라는 작은 창을 통해 세계 역사의 현장을 조명한 책이 발견됐다. 건축가이자 희귀한 우표 수집가인 비에른 베르에가 펴낸 ‘오래된 우표, 사라진 나라들’은 한때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근현대 시대 나라를 불러낸다. 저자는 옛 지도, 당시를 살았던 증인들의 기록, 후대 역사가의 해석 등을 토대로 생생한 역사를 펼쳐낸다. “저는 사용하지 않은 새 우표에는 별 흥미가 없습니다. 손을 많이 탄 우표, 세월이 묻어나는 우표일수록 제겐 귀중합니다... 오래 전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먼저 느꼈던 인상들이 스쳐가고, 저도 함께 그 느낌에 젖어듭니다.” 책은 역사에서 사라진 50여 개의 나라들이 등장한다. 내전과 내전을 거듭하다 파멸한 보아카 왕국, 포격 흔적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는 양시칠리아왕국, 간유 공장으로 쓰이다 화산 폭발로 무인도가 된 사우스세틀랜드제도도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사자가 속출했던 아프리카의 ‘비아프라’, 가스누출로 2800여 명의 사망자와 20만 명의 피해자를 낳았던 인도의 ‘보팔’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열강의 교묘한 술책으로 평화롭던 나라가 원주민들과 함께 사라진 나라도 있다. 티에라델푸에고에 거주했던 야간족이라는 부족은 그 희생양이다. 이들

책꽂이 투쟁기

김흥식 지음



“이리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출판하는 삶은 즐겁습니다.” 사상산업이라는 출판업을 30년 간 이어온 출판인 김흥식(서해문집 대표)이 ‘책꽂이 투쟁기’를 펴냈다. 스톤세 살에 평생 출판을 업으로 삼겠다 다짐하고 서른세 살에 십년 동안 모은 돈으로 출판사 등록을 하고 책을 펴냈다. 그러나 모은 돈을 다 소진한 끝에 다시 돈을 모아 마흔세 살 다시 출판에 도전해 30여 년 동안 1천권의 책을 출판했다. 저자는 책들 때문에 출판인이 됐고 출판의 꿈을 접지 않은 것은 책들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책꽂이 투쟁기’는 독특한 제본으로 눈길을 끈다. 책을 묶는 방식 때문에 책을 펼치면 책 가운데가 둥그렇게 된다. 이러한 제본 방식은 쉽고 편리하나 독자들이 책을 읽기가 불편하다. 저자는 책의 특성상 많은 책들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 까닭에 누드 제본 방식을 택했다. 먼저 저자는 책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라고 규정한다. 저자는 문명의 기초가 되는 ‘문자 이야기’, ‘세계의 문자체계’, ‘서법 오천년’ 등을 소개한다. 고전에 대한 질투와 욕망 부분에 관한 책도 수록돼 있다. 교과서에서 보거나 말로만 들던 자동설을 전개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와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 회부한 결정적 계기가 된 ‘천문대화’를 봤을 때 저자의 심리는 어땠을까. 해외 서점에 그러한 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질투와 욕망으로 고전을 사왔다. 저자는 책꽂이에 있는 책만이 아니라 음반, 잡지, 사진 등도 소개한다. 임방울의 판소리, 가수 남인수의 노래를 좋아하고 김연수나 박봉술 같은 판소리꾼을 사랑해 음반까지 낼 정도의 음악열정으로 모은 음반들도 소개한다. <그림씨·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비디오 게임이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이나 질병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전 세계 부모들의 오랜 걱정거리였던 ‘게임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그 영향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아이들의 ‘공격성’과 ‘폭력성’. 비디오 게임이 지금의 아이들을 전혀 없이 폭력적인 ‘살인 세대’로 만들었음을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미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 데이브 그로스먼과 미디어 교육자 크리스틴 폴슨 테이크가 펴낸 ‘살인 세대’다. 책은 1975년 10대 청소년이 최초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한 ‘퍼두커 학교 총격 사건’부터 샌디훅 초등학교, 노르웨이 청소년 캠프, 존스버러 중학교, 콜럼비아 고등학교 등에서 터져나온 총기 난사 사건들을 예시로 든다. 의료 기술의 진보와 교도소 수용 비율 증가로 전체적인 폭력 범죄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유독 학교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 저자는 청소년이 능동적인 폭력을 습득하게 하는 비디오 게임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책은 9개 장에 걸쳐 진행된다. 1-5장에서 비디오 게임을 폭력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폭력적인 게임이 일으키는 뇌 구조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6장에서 비디오 게임을 제한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되짚고, 7장에서 비디오 게임이 폭력성과 아이들의 학습 능력,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이어 8-9장에서 해결 방안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열린책들·1만6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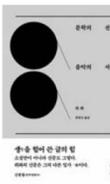
살인 세대

그로스먼 등 지음·오수원 옮김



“가장 세계적인 중국 작가”로 불리는 소설가 위화(魏華). ‘허삼관 매월기’, ‘제7일’, ‘형제’ 등 소설로 이름을 알린 그는 이탈리아 그린차네 카보우르 문학상, 프랑스 문학예술 훈장, 프랑스 꾸리에 앙테르나시오날 해외 도서상 등을 수상하며 중국 문학계의 거장으로 자리잡았다. 위화가 독자와 음악 감상에 관한 생각이 담긴 에세이를 한 데 모은 책 ‘문학의 선율, 음악의 서술’이 출간됐다. 소설로는 알기 힘든 작가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산문 형식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되, 특히 고전 문학과 고전 음악을 접하며 음악과 문학의 연관성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된 작가의 사유에 무게를 뒀다. 책에는 작가가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인생’과 ‘허삼관 매월기’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을 무렵 썼던 20편의 글과 1편의 인터뷰가 담겼다. 책은 첫 번째 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검손’과 ‘의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작가의 예술관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어 포크너, 카프카, 루쉰, 헤밍웨이 등이 쓴 고전문학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함께 쇼스타코비치와 나다니엘 호손의 유사성을 탐구하는 그만의 시각, 멘델스존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서술에서의 부정의 원칙 등 음악과 문학의 연관성을 찾는 과정이 담겼다. 마지막 장에는 애약(愛樂) 잡지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으며, 서양 고전문학과 차이코프스키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겼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작곡 경험과 고전문학에 빠지게 된 계기, 브람스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등도 풀어낸다. <푸른숲·1만68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문학의 선율 음악의 서술



“우리는 거센 폭풍에 휘말려 밴디먼스랜드 북서쪽으로 떠내려갔다. 위치를 측정해보니 남위 30도 2분이었다. 선원 열두 명은 과로와 식중독으로 죽었고, 남은 선원들도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구절이다. 몇 문단 위에는 배가 난파하고 주인공 걸리버가 어느 해안으로 표류해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곳은 리리퍼트라는 나라로, 15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소인들이 살고 있었다.”(본문 중에서) 오늘날 사용되는 형태의 우표가 처음 발

Advertisement for Wood Builders (우드빌더스)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dern house and a grid of smaller images showing different architectural styles: Modern, Classic, and Mediterranean Sea. Text includes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and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